

학술지 내용분석법에 의한 교육학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in Educational Journal Articles: Content Analysis

이 명 희(Myung-Hee Lee)*

김 은 주(Eun-Ju Kim)**

초 록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두 학술지에 10년 동안 발표된 연구논문 913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발표논문 수와 연구주제별 발표논문 경향, 연구행태, 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의 수와 소속, 연구방법, 연구비 지원유무 및 지원기금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행정과 고등교육 분야의 논문발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교육학 연구』에서는 기초학문적인 연구가, 그리고 『한국교육』에서는 정책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등의 순서로 사용되었지만 실험연구가 널리 사용되는 연구방법임이 밝혀졌다. 연구수행 행태에서 67%의 연구가 단독연구이며, 85%의 연구가 교수와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교육분야 연구, 국제지표와 현안에 대한 비교연구, 방법론의 정교화, 연구 분석단위의 다양화를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used content analys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two core journals from 2000 to 2009 in education. The analysis measured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research behaviors, numbers of author and co-authors' affiliations, and research funds. The results showed that research articl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higher education have increased constantly, whereas research articles in other fields have decreased. Experimental research method was shown to be used widely along with documentary research and survey research method. Most researches were done by one author and each of them were affiliated to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ions. The research suggested practical educational research, comparative research on international issues and indexes, methodological elaboration, and use of various units of analysis for future studies.

키워드: 교육학 연구동향, 내용분석법,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

Educational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s, Researchers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ehelee@smu.ac.kr) (교신저자)

**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화기획실 사서(bonnyk@kedi.re.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5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6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6월 15일

1. 서론

한국교육은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비롯한 주요한 국제 비교를 통해 최상위에 랭크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0)의 교육통계 분석에 의하면, 교육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단계별 취학률도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98.6%, 중학교 97.6%, 고등학교 92.4%에 해당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구의 79%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만큼 양적성장을 가져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이는 교육을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물론, 그 결과로 사교육과 입시, 과도한 교육열 등 일종의 부작용이 적지 않게 사회문제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교육은 우리 주변의 실질적인 현상과 문제로 다가와 있고 누구나와 관계가 있는 영역이다. 이와 같이 누구나와 관련 있는 '교육'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교육학에 대해 이흥우 등(1997)은 학문적으로 응용과학에 분류하고 있다. 즉, '교육'이 '실제'를 가르치는 것에 반해 '교육학'은 '이론'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교육'이라는 실제적 활동을 하는데 응용되는 '이론'을 교육학에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으로서의 '교육학'이 '교육' 실제에 응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학 연구는 이와 같이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응용과학 중에서 사회과학에 분류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된 주변 학문과의 관계도 밀접하다.

교육에 관한 관심과 이슈가 많아질수록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연구 내용이나 방법에서 연구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교육학의 내용면에서 현상의 진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물론, 방법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학 연구의 국내외적인 비교와 교류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의 내용을 연구방법론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째, 국내외적으로 교육학의 연구방법론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논문을 살펴보고 연구방법론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된 논문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향후 교육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상의 방향 제시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물론 학문 간의 연계에 의해 교육학이 종합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연구방법론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 및 제언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육학의 학문적 전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학문의 연구방향, 학문의 발전추세 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학 분야의 핵심주제와 관심 영역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의 편중과 분포, 추세 등 여러 상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비 지원의 유무와 지원기관에 대한 분석을 연구주제, 연

구방법 등 다각적인 변인을 가지고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교육학 분야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영역별로 구분하면, 교육학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교육학의 특정 하위영역이나 주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그리고 교과교육의 하위영역으로 특정 교과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교과 중심의 연구경향은 제외한 교육학 전반의 연구 경향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학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교육학의 학문적 동향을 분석한 김승화 등(1983)은 해방이후부터 1980년도까지 연구논문 1,630편을 대상으로 22개의 분석 요소를 가지고 연구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학 연구가 교육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면에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 교육활동 지원체제,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방법면에서는 실태분석과 기술 연구가, 연구대상은 주로 학생과 교사, 표집의 크기는 400명 이상과 100명 미만이 70%를 차지함을 보고하였다. 유사한 연구로서 서정화(2005)도 해방이후 50년간의 교육정책 관련 연구의 특징을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육정책 연구의 시대별 특징으로 1960년대에는 고등교육, 1970년대는 교원교육과 중등교육, 1980

년대는 교원교육과 고등교육, 1990년에는 교원교육과 평생·직업교육, 2000년대에는 중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물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김정자(1990)는 동시인용 분석을 통해 1981년부터 10년간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55편을 대상으로 교육학 연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교육심리학, 교육행정, 교육철학의 순서로 많이 행해졌음을 밝혔다.

교육학의 하위주제 영역의 주제별 경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유아교육, 평생교육, 교육과정, 고등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다. 김미정과 강인설(2009)은 영유아보육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도별 발표 경향,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황윤세와 최미숙(2008)은 10년간의 유아교육 분야에서 발행된 주요학술지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평가관련 논문을 발췌 분석하여 유아교육학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유형, 자료수집, 표집 대상, 표집크기, 검사도구, 자료분석 방법,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분야에서 임형택(1991)은 해당 분야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 학술커뮤니케이션 영향 관계, 인용상의 영향 관계 등을 분석하여 학문 활동의 본질이 되는 학파를 규명하고 학파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김민환(2010)은 다문화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실태 분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분야, 교수학습방법 분야, 프로그램 개발 분야, 다문화 교육에 관한 태도 및 인식 분야, 기타 다문화 교육 연구주제 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다문화 교육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평생교육 분야 연구에서 박삼근(2005)은 연구동향을 학술지별로 분석하고 연구영역을 10개로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과정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주제영역이 연대별로 특이한 현상을 파악하였다. 2000년대에 학습개념이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학습자와 학습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성인교육연구에 대한 시사점 모색을 위하여 최은수(2009) 등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학회지에 게재되었던 총 270편의 연구 논문을 투고자 지역별 분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연구주제 분석 결과는 성인교육철학 및 패러다임의 변화가, 연구대상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고, 연구방법에서는 문헌연구가 과반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등교육 분야에서 신정철 등(2008)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외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295편을 주제영역, 연구방법, 분석방법, 논문분석 단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연구의 연구동향은 대학의 책무성 및 질 관리, 대학생, 재정 등에 관한 연구가 많으나 외국의 연구동향은 학생, 교육과정 및 수업, 대학교수에 대한 주제가 많음을 발견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모두 국가단위, 대학단위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양적 연구가 많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연구가 실증적·현장 중심적·학생 중심의 연구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연구(Institutional Research: IR)적 접근성을 주장하였다.

교육학 일반을 다룬 외국의 논문으로서

Emmons 등(1990)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발간된 교육학 분야 학술잡지 3종의 논문을 대상으로 사용된 통계기법을 분석하였다. 37%의 논문이 ANOVA를, 13%의 논문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기술통계, 비모수통계, 카이자승, 요인분석 등의 통계기법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다변량분석, 공분산, 다중회귀분석법 등의 고도의 통계기법을 더욱 많이 사용함을 지적하였다. Hsu(2006)는 교육학 분야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2,226건을 대상으로 주제별, 연구방법, 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18개 주제영역, 30개 연구방법, 34개 데이터 분석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제가 교육에서의 심리학, 교사, 교수/학습지도, 측정/평가, 질문방법이며, 연구방법은 실험연구, 기술적 연구, 상관관계 연구, 비교연구를 많이 사용하였고, 데이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ANOVA/ANCOVA, 상관관계, 회귀분석, t-test 등을 많이 사용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가 증가하고, 1980년 중반부터 양적연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Englund(2006)은 1970년대부터 30년 동안 스웨덴의 교육연구 동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970년대에는 전통적으로 양적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교육사회학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 수행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1980년의 주된 연구방법은 현상학과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교수법'을, 그리고 1990년대의 주된 특징은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언어적 회귀임을 강조하였다.

Knudson 등(2002)은 1990년부터 10년 동안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에 수록된 논문으로부터 Literacy를 조사하였다. 26%의

논문이 literacy에 관한 논문임을 밝혔으며, 저자의 성, 연구방법, 통계사용, 주제의 수와 주제의 발간연도, 연구의 종류를 조사하고, 70% 이상의 논문이 공동저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50%의 논문이 실험연구를, 22%는 상관관계를, 그리고 21%는 기술적인 통계를 사용함을 발견하고, 54%의 논문이 초등 관련 주제, 15%는 고등학교 관련주제, 5%는 중등학교 주제, 그리고 4%는 대학관련 주제임을 파악하였다.

교육학의 하위영역인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Silverman(1987)은 'Journal of Higher Education'을 비롯한 고등교육 관련 8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6개 대영역과 53개 소영역으로 나누어 연구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의 특성 및 발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학생관련 행정업무, 수업과 학습, 교육과정 등에 관한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Budd(1990)는 고등교육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인용 학술지, 피인용 저자, 상호 연구자 인용, 인접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등교육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와 저자를 밝혀내고, 저자들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고등교육 연구자들 간의 상호 인용을 파악하였으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접학문 분야로서 교육학 일반과 사회학, 심리학, 경영 및 경제학 일반임을 지적하였다. Tight(2007)는 유럽에서 발간되는 고등교육 학술지 17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고등교육의 연구동향과 고등교육 연구자들의 상호 인용 경향을 연구하였다. 그는 유럽 고등교육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연구자를 파악하고, 고등교육의 학문적 성격이 교육학 이외의 타

사회과학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발간된 대표적인 교육학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을 분석함으로써 교육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교육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특히 연도별로 논문주제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교육학의 학문적 전망을 예측하고, 학문의 연구방향, 학문의 발전추세 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핵심주제와 주제의 편중과 분포, 추세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학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 연구방법이 연구주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연구수행 형태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또, 연구방법이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수행 형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본다. 셋째, 교육학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중 단독연구자와 공동연구자의 수와 신분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것이 주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넷째, 교육학 분야 연구자가 연구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지, 그리고 주제에 따라 지원되는 연구기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다섯째,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학이

종합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연구방법론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 및 제언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교육학회의 『교육학 연구』와 교육분야 전문연구소인 K연구원에서 출간된 『한국교육』에 발표된 연구논문으로 제한하였다. 『교육학 연구』는 한국교육학회에서 발간되는 교육학 분야의 대표 학회지로서 40여년간의 전통을 가진 교육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이며, 『한국교육』은 37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국책 연구소인 K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이다. 이들 두 학술지는 질과 양 뿐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도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인정되고 있다(김승화 1983; 서정화 2005). 연구방법은 조사대상 학술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이론적인 시각 등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내용분석법의 형태를 취하였다. 조사대상 학술지의 연구논문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연구논문 총 913편(『한국교육』 395편과 『교육학 연구』 518편)이다.

사용된 연구방법 및 내용분석 방법은 양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연도별 발표 논문수, 주제별 논문수, 연구방법, 연구행태, 연구자 신분 및 공동연구자 신분과 수, 연구비 지원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교육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주제 영역은 기존 관련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주제가 검토된 후,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

육행정,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과교육, 상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측정·평가, 기타항목의 16개 연구주제로 구분되었다(Knudson etc. 2002; 서정화 2005; Englund 2006).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 또한 기존의 연구논문이 검토된 후,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역사연구, 평가연구, 내용분석법, 사례연구, 질적연구, 기타 연구의 9종류로 나누어졌다(Emmons etc. 1990; 김승화 1983; Hsu 2006). 특히 질적 연구의 포함범위는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학, 민속지학 등의 연구 뿐 아니라 심층면접과 관찰 등에서 결과를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질적 연구에 포함시켰다. 저자신분도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교수, 연구원, 교사, 대학원생, 회사원, 공무원, 강사, 기타로 8구분하였고, 공동저자 신분도 공동으로 연구가 수행된 경우에 제1저자를 제외한 저자신분을 구분한 것으로 첫째 저자신분과 같이 8구분하였다. 또한, 연구지원은 대학,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기업, 교육과학부, 기타 정부부처, 기타 공공기관, 기타로 8구분하였다.

특히, 연구주제 구분은 다양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6개 영역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전문 연구기관인 K연구소의 21개 교육정책 분류체계, 서정화 등(2005), 이명희(2009)의 연구논문 등에서 사용한 교육정책분야 주제분류체계, K연구소 도서관의 교육 연구논문 분류체계와 DDC 문헌 분류체계, K연구소 도서관의 웹 분류체계인 AskKEDI 분류체계와 ERIC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확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분류체계는 K연구소의 21주제 교

육정책 분야 분류체계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 정책중심, 현안중심, 이슈중심의 분류체계로서 현장 위주의 역동적인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 그 중, 교과교육에 해당하는 영역은 특정 교과로 분류하지 않고 교과교육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및 교육학 영역에서는 주제와 교육의 대상을 동시에 분류하거나 이중적인 분류를 적용하는 다른 학문 분야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분류에 있어서 DDC의 교육학 분야의 분류 원칙을 적용하였으므로 대상과 주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연구에 있어서 대상이 특정할 경우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인 경우에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의 제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둘 이상의 복수의 주제항목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임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일 주제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복합주제의 다양성을 주제항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복수의 연구주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된 연구논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한 논문에서도 연구자가 임의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한 단일 연구방법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된 연구방법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학 분야 연구에서는 단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둘 이상의 연구방법을 동시에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 연구방법만을 채택함으로

써 실제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4. 연구결과의 내용분석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교육학 연구』에 게재된 논문 518편, 『한국교육』에 게재된 논문 395편을 더한 총 913편을 대상으로 교육학 연구의 주제, 연구방법, 연구행태, 연구주체인 저자와 공저자의 수 및 신분, 연구지원금의 출처별 내용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교육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4.1 연도별 연구 동향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간 두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의 연도별 수록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학 연구』의 수록논문이 518편으로 『한국교육』에 수록된 논문(395편)보다 123편 더 많다(〈표 1〉 참조). 연도별 수록논문 수는 2004년(147편), 2003년(127편), 2002년(100편), 2001년(99편), 2005년(97편)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두 학술지의 수록논문이 2002-2005년에 특히 증가하였지만 『교육학 연구』의 수록논문은 2005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교육』 수록논문은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육학 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교육학의 하위영역인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등의 세부주제별 학회지가 다수 발간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주제의 연도별 수록 현황을 〈표 2〉에서

〈표 1〉 학술지에 수록된 연도별 연구논문 수

(단위: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교육학 연구	52 (10.0)	62 (12.0)	68 (13.1)	81 (15.6)	78 (15.1)	41 (7.9)	41 (7.9)	29 (5.6)	41 (7.9)	25 (4.8)	518 (100.0)
한국 교육	10 (2.5)	37 (9.4)	32 (8.1)	46 (11.6)	69 (17.5)	56 (14.2)	38 (9.6)	36 (9.1)	41 (10.4)	30 (7.6)	395 (100.0)
계	62 (6.8)	99 (10.8)	100 (11.0)	127 (13.9)	147 (16.1)	97 (10.6)	79 (8.7)	65 (7.1)	82 (9.0)	55 (6.0)	913 (100.0)

〈표 2〉 연구주제의 연도별 수록현황(종합)

(단위: 건, %)

구분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과교육	상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측정·평가	기타	전체
2000	12	5	3	8	3	4	3	3	3	2	1	7	1	5	2	0	62(6.8%)
2001	20	12	4	10	11	2	4	2	10	1	5	5	1	4	7	1	99(10.8%)
2002	13	10	5	12	11	6	3	1	6	5	5	16	2	3	2	0	100(11.0%)
2003	15	20	8	26	5	4	4	0	3	6	6	15	2	2	9	2	127(13.9%)
2004	16	11	10	26	8	4	4	3	12	7	10	20	6	5	4	1	147(16.1%)
2005	6	8	6	22	6	5	6	1	3	4	5	16	3	4	1	1	97(10.6%)
2006	5	7	11	10	1	2	2	2	2	3	9	13	5	5	1	1	79(8.7%)
2007	6	9	3	11	0	1	0	1	2	4	7	8	5	6	2	0	65(7.1%)
2008	9	7	8	13	2	0	4	2	2	5	6	19	1	0	4	0	82(9.0%)
2009	3	4	6	7	1	5	3	2	2	1	4	11	3	0	1	2	55(6.0%)
계	105 (11.5)	93 (10.2)	64 (7.0)	145 (15.9)	48 (5.3)	33 (3.6)	33 (3.6)	17 (1.9)	45 (4.9)	38 (4.2)	58 (6.4)	130 (14.2)	29 (3.2)	34 (3.7)	33 (3.6)	8 (0.9)	913 (100.0)

살펴보면, 교육행정(145편), 고등교육(130편), 교육사·철학(105편)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 유아교육 분야는 2004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행정과 고등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과 교육행정 분야 논문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은 교육학의 기초 학문영역에 해당하는 교육학 분과 학술연구의 전문화와 교육전문연구소의 세분화에 따라 영역별로 특성화된 기관별 학술지 발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인 『한국교육』이 교육정책전문연구

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라는 측면에서 주제 분야의 분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 연구』와 『한국교육』의 연도별 수록 논문 현황을 〈표 3〉과 〈표 4〉에서 살펴보면, 2000년의 『교육학 연구』에는 교육사·철학이, 『한국교육』에는 교육행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교육학 연구』에는 교육심리학, 교육사·철학, 유아교육 등 비교적 전주제가 고르게 나타났으나 『한국교육』은 교육사·철학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002년에 『교육학 연구』는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나

〈표 3〉 『교육학 연구』의 연도별 - 연구주제별 논문 수록현황

(단위: 편)

구분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과교육	상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측정·평가	기타	전체
2000	10	5	3	4	3	3	2	3	3	2	1	7	1	4	1	0	52
2001	7	9	2	6	5	2	3	2	8	1	5	3	0	3	6	0	62
2002	10	9	3	6	10	4	1	1	3	4	4	8	1	3	1	0	68
2003	10	19	5	14	4	3	1	0	1	3	5	9	1	0	6	0	81
2004	12	10	6	4	5	4	4	2	7	6	6	9	2	1	0	0	78
2005	5	7	0	5	0	4	4	0	0	3	5	7	0	1	0	0	41
2006	4	5	2	4	0	2	2	0	2	2	8	5	2	3	0	0	41
2007	2	9	1	3	0	0	0	0	1	3	3	5	2	0	0	0	29
2008	5	6	1	6	0	0	1	1	2	4	3	11	0	0	1	0	41
2009	3	3	2	2	0	1	0	1	1	1	2	7	1	0	0	1	25
계	68	82	25	54	27	23	18	10	28	29	42	71	10	15	15	1	518

〈표 4〉 『한국교육』의 연도별 - 연구주제별 논문 수록현황

(단위: 편)

구분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과교육	상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측정·평가	기타	전체
2000	2	0	0	4	0	1	1	0	0	0	0	0	0	1	1	0	10
2001	13	3	2	4	6	0	1	0	2	0	0	2	1	1	1	1	37
2002	3	1	2	6	1	2	2	0	3	1	1	8	1	0	1	0	32
2003	5	1	3	12	1	1	3	0	2	3	1	6	1	2	3	2	46
2004	4	1	4	22	3	0	0	1	5	1	4	11	4	4	4	1	69
2005	1	1	4	17	6	1	2	1	3	1	0	9	3	3	1	1	56
2006	1	2	9	6	1	0	0	2	0	1	1	8	3	2	1	1	38
2007	4	0	2	8	0	1	0	1	1	1	4	3	3	6	2	0	36
2008	4	1	7	7	2	0	3	1	0	1	3	8	1	0	3	0	41
2009	0	1	4	5	1	4	3	1	1	0	2	4	2	0	1	1	30
계	37	11	39	91	21	10	15	7	17	9	16	59	19	19	18	7	395

타내었으며 고등교육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교육』 역시 고등교육 분야 논문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행정 분야 논문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사회학 분야는 『한국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지속적으로 차지하는 반면, 『교육학 연구』에서는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양 학술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의 『한국교육』에는 타 주제 분야에 비해 교육행정과 고등교육분야가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사회학 분야의 논문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사회현상과의 관계

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정화(2005)는 교육행정 및 재정연구가 1990년대부터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관련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파악하였다. 서정화의 연구는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및 일반 자료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한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은 교육개혁 전반을 교육행정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교육행정 분야의 논문발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중등교육정책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은 정부차원에서 지식정보화 사

회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초·중등 교육을 특별히 개혁대상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한 것과 분석의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4.2 주제별 연구 동향

교육학 분야의 주제 분류는 학문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총 15개의 주제 분야와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 16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과교육, 상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측정·평가, 기타이다.

〈표 5〉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연구된 주

〈표 5〉 학술지별 연구주제별 논문 수록 현황

구 분	교육학연구(%)	한국교육(%)	전체(%)
교육사·철학	68(13.1%)	37(9.4%)	105(11.5%)
교육심리학	82(15.8%)	11(2.8%)	93(10.2%)
교육사회학	25(4.8%)	39(9.9%)	64(7.0%)
교육행정	54(10.4%)	91(23.0%)	145(15.9%)
교육과정	27(5.2%)	21(5.3%)	48(5.3%)
교육공학	23(4.4%)	10(2.5%)	33(3.6%)
교과교육	18(3.5%)	15(3.8%)	33(3.6%)
상담	10(1.9%)	7(1.8%)	17(1.9%)
유아교육	28(5.4%)	17(4.3%)	45(4.9%)
초등교육	29(5.6%)	9(2.3%)	38(4.2%)
중등교육	42(8.1%)	16(4.1%)	58(6.4%)
고등교육	71(13.7%)	59(14.9%)	130(14.2%)
특수교육	10(1.9%)	19(4.8%)	29(3.2%)
평생교육	15(2.9%)	19(4.8%)	34(3.7%)
측정·평가	15(2.9%)	18(4.6%)	33(3.6%)
기 타	1(0.2%)	7(1.8%)	8(0.9%)
총 계	518(100.0%)	395(100.0%)	913(100.0%)

제분야는 교육행정(15.9%), 고등교육(14.2%), 교육사·철학(11.5%), 교육심리학(10.2%), 교육사회학(7.0%)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을 전후하여 교육행정과 고등교육 분야의 논문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에 정점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반하여 교육심리, 교육사·철학 분야는 2000년대 초반에는 다수 생산되었으나 2005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교육학 연구』에서는 교육심리학(15.8%), 고등교육(13.7%), 교육사·철학(13.1%), 교육행정(10.4%)의 순으로 나타나 학문적인 영역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교육분야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행되는 『한국교육』은 교육행정(23.0%), 고등교육(14.9%), 교육사회학(9.5%), 교육사·철학(9.4%)의 순서로 나타나 교육행정과 고등교육 연구 등 정책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 연구경향을 분석한 김승화 등(1983)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행정의 순으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의 주제 분야가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과거에 비해 교육심리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가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정화(2005)의 논문에서 보여준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한국교육교개발원(2010)의 통계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구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와 고등교육 관련 연구의 증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규모의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12월 현재 고등교육 기관이 400여개를 넘고 있으며 관계되는 교수 7만여명, 학생수 350만명 정

도로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종재 등(2010)은 한국교육 60년을 교육발전 단계별로 구분하였을 때 2001년부터는 교육의 재구조화 단계로 평생학습, 인적자원개발, 세계화 지식정보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고등교육의 재구조화 등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과 함께 국내외적인 경쟁과 BK21, NURI 사업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는 변화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기타 주제의 내용에는 세계화, 국제협력, 인적자원, 인력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제화와 국제협력은 2000년대 이후에 와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들이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는 지구촌 개념이 도입되어 국제화, 세계화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또한, 교육 분야에 경제개념이 도입되어 직업교육, 취업교육의 중요성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의 영역이 개별 국가차원을 벗어나 국제화하게 되고 교육의 목표도 인력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으로 확대되었다.

〈표 6〉에서 연구주제별로 선호되는 연구방법의 특성을 살펴보면, 문헌연구는 교육사·철학(79건), 교육행정(71건), 고등교육(34건), 교육사회학(32건), 교육과정(28건), 교육심리학(25건)에서 선호되었으며, 조사연구는 고등교육(54건), 교육행정(34건), 교육심리학(27건), 중등교육(21건), 유아교육(17건)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실험연구는 특수교육(38건), 교육심리학(29건), 고등교육(15건), 교육공학(11건) 분야

〈표 6〉 연구주제별로 선호되는 연구방법

(단위: 건)

구 분	전체 논문수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사·철학	105	문헌연구(79)	역사연구(23)	실험연구(2)
교육심리학	93	실험연구(29)	조사연구(27)	문헌연구(25)
교육사회학	64	문헌연구(32)	조사연구(14)	질적연구(6)
교육행정	145	문헌연구(71)	조사연구(34)	질적연구(12)
교육과정	48	문헌연구(28)	조사연구(5)	실험연구(4), 내용분석법(4)
교육공학	33	실험연구(11)	문헌연구(8)	조사연구(5)
교과교육	33	문헌연구(11)	실험연구(7)	내용분석법(4)
상담	17	조사연구(6)	문헌연구(5)	실험연구(2)
유아교육	44	조사연구(17)	문헌연구(12)	실험연구(9)
초등교육	38	조사연구(14)	질적연구(9)	문헌연구(6), 실험연구(6)
중등교육	58	조사연구(21)	실험연구(11)	문헌연구(9)
고등교육	130	조사연구(54)	문헌연구(34)	실험연구(15)
특수교육	59	실험연구(38)	조사연구(11)	문헌연구(7)
평생교육	39	문헌연구(17)	조사연구(8)	평가연구(6), 사례연구(6)
측정·평가	32	조사연구(11)	문헌연구(9)	실험연구(4), 평가연구(4)
기 타	8	문헌연구(4)	사례연구(2)	조사연구(1)

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역사연구는 교육사·철학(23건)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질적연구는 교육행정(12건), 초등교육(9건), 교육사회학(6건) 분야에서 다수 사용되었으며, 교과교육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분석법을, 그리고 평생교육과 측정·평가 분야에서는 평가연구방법이 자주 사용되었다.

〈표 7〉에서 연구주제별로 수행되는 연구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단독연구(66.3%)가 공동연구(33.7)보다 두 배 더 많이 수행됨을 파악하였다. 단독연구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교육사·철학(92.4%), 교과교육(75.8%), 측정·평가(75.8%), 평생교육(73.5%)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에 특수교육(75.9%), 유아교육(64.4%), 상담(47.1%), 교육심리학(41.9%) 분야는 공동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공동연구가 이루어진 논문 수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육행정과 고등교육이 각각 14.6%, 교육심리학 12.7%, 유아교육 9.4%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행정과 고등교육 분야는 연구건수의 절대적인 우위로 인해 공동연구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교육심리학과 유아교육은 상대적인 공동연구 비율이 높은 동시에 공동연구자 수도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학술지별로 주제별 공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를 살펴보면, 두 학술지 모두 교육행정, 고등교육, 교육심리학의 순으로 공동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교육학 연구』에는 교육심리학 분야의 공동연구자 수가 현저히 많고, 고등교육, 교육행정, 유아교육, 중등교육의 순으로

〈표 7〉 연구주제별로 수행되는 연구형태

구 분	단독연구		공동연구		전체(%)
	건수	%	건수	%	
교육사·철학	97	92.4	8	7.6	105(100.0%)
교육심리학	54	58.1	39	41.9	93(100.0%)
교육사회학	46	71.9	18	28.1	64(100.0%)
교육행정	100	69.0	45	31.0	145(100.0%)
교육과정	34	71.0	14	29.0	48(100.0%)
교육공학	21	63.6	12	36.3	33(100.0%)
교과교육	25	75.8	8	24.2	33(100.0%)
상담	9	52.9	8	47.1	17(100.0%)
유아교육	16	35.6	29	64.4	45(100.0%)
초등교육	23	60.5	15	39.5	38(100.0%)
중등교육	35	60.3	23	39.7	58(100.0%)
고등교육	85	65.4	45	34.6	130(100.0%)
특수교육	7	24.1	22	75.9	29(100.0%)
평생교육	25	73.5	9	26.5	34(100.0%)
측정·평가	25	75.8	8	24.2	33(100.0%)
기 타	3	37.5	5	62.5	8(100.0%)
전 체	605	66.3	308	33.7	913(100.0%)

〈표 8〉 학술지별 공동연구 논문 수와 연구주제

구 분	교육학연구	한국교육	전체 건수
교육사·철학	5	3	8(2.6%)
교육심리학	35	4	39(12.7%)
교육사회학	9	9	18(5.8%)
교육행정	18	27	45(14.6%)
교육과정	4	10	14(4.5%)
교육공학	9	3	12(3.9%)
교과교육	3	5	8(2.6%)
상담	3	5	8(2.6%)
유아교육	16	13	29(9.4%)
초등교육	6	9	15(4.9%)
중등교육	15	8	23(7.5%)
고등교육	24	21	45(14.6%)
특수교육	6	16	22(7.2%)
평생교육	2	7	9(2.9%)
측정·평가	3	5	8(2.6%)
기 타	1	4	5(1.6%)
총 계	159	149	308(100.0%)

로 나타났으며, 『한국교육』은 교육행정, 고등교육, 특수교육의 순으로 공동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4.3 연구방법의 동향

일반적으로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분석된 교육학 분야 연구논문에서는 연구내용과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많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한가지 연구방법만을 선택하여 계산하였다. <표 9>에서 교육학 분야 학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39.1%, 조사연구 25.3%, 실험연구 12.2%, 사례연구 5.9%, 질적 연구 5.2%, 기타연구 4.8%, 역사연구 4.3%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학술지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학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와 사례연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국교육』의 경우에는 문헌연구, 조사연구, 역사연구, 질적연구가

자주 사용되었다.

연구방법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헌연구에 속하는 것들은 이론적 기술, 철학적 기술, 현황기술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례연구에는 현장연구, 사회현상과 사회학적 요소를 반영한 연구가 포함된다. 질적연구에는 현상학, 문화기술학, 민족지학 등의 전통적인 질적 연구뿐 아니라 참여관찰이나 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것 중에서 데이터를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조사연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질적 연구에 포함시켰다. 기타연구의 내용에는 시뮬레이션, 로짓분석, 중단연구, 비교분석, 시나리오분석법 등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2003년 OECD 학업성취도 결과(PISA)에 근거하여 수행된 한국교육의 평준화정책 결과에 대한 횡단연구,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한국교육중단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교육학 분야에서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는 대규모 데이터의 일부를 이차자료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

<표 9> 학술지별로 사용된 연구방법

구 분	교육학연구(%)	한국교육(%)	전체(%)
문헌연구	188(36.3%)	169(42.8%)	357(39.1%)
조사연구	124(23.9%)	107(27.1%)	231(25.3%)
실험연구	98(18.9%)	13(3.3%)	111(12.2%)
역사연구	12(2.3%)	27(6.8%)	39(4.3%)
평가연구	5(1.0%)	14(3.5%)	19(2.1%)
내용분석법	10(1.9%)	12(3.0%)	22(2.5%)
사례연구	28(5.4%)	15(3.8%)	53(5.9%)
질적 연구	23(4.4%)	24(6.1%)	47(5.2%)
기타연구	30(5.8%)	14(3.5%)	44(4.8%)
계	518(100.0%)	395(100.0%)	913(100.0%)

특이 사항으로는 실험연구가 조사연구와 함께 교육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구방법임이 밝혀졌는데, 교육심리학과 측정·평가영역 등을 중심으로 성취도 검사, 심리 검사, 창의력 검사, 영재 판별 등에 검사지와 심리검사방법이 자주 사용됨으로써 실험과 현장위주의 연구가 교육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정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학의 학문적 특성과 교육의 실천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4.4 연구행태

〈표 10〉에서 연구수행 행태를 살펴보면, 단독연구가 66.3%, 공동연구가 33.7%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교육』의 경우(36.7%)가 『교육학 연구』의 경우(31.5%)보다 공동연구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표 11〉은 공동연구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서, 2인 연구 64.3%, 3인 연구 24.7%, 4인 연구 7.4%의 순서로 나타나 공동연구 참여 인원수는 1인 또는 2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학 분야 연구 지원 사업에 관한 류청산(2009)의 연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교육학 연구에서 공동연구 수행시 평균 2.2인이 공동연구를 수행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2〉에서는 교육학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저자의 신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첫 번째 저자와 공저자의 신분을 교수, 연구원, 교사, 대학원생, 회사원, 공무원, 강사,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학술지의 첫 번째 저자는 교수 59.3%, 연구원 25.4%, 강사 9.1%, 대학원생 2.7% 등으로 나타나 전체의 84.7%가 교수와 연구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학술지별로는 순수한 학술지인 『교육학 연구』에는 교수 72.0%, 연구원 17.0%, 강사 6.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교수의 비율

〈표 10〉 학술지별 연구수행 행태(단독 또는 공동연구)

	전 체		교육학 연구		한국교육	
	단독연구	공동연구	단독연구	공동연구	단독연구	공동연구
건 수	605	308	355	163	250	145
%	66.3	33.7	68.5	31.5	63.3	36.7

〈표 11〉 학술지별 공동연구 수행 현황

구 분	교육학연구(%)	한국교육(%)	전체(%)
2인 공동	107	89	198(64.3%)
3인 공동	34	41	76(24.7%)
4인 공동	11	12	23(7.4%)
5인 공동	4	1	5(1.6%)
6인이상 공동	4	2	6(2.0%)
계	163	145	308(100.0%)

〈표 12〉 학술지별 첫 번째 저자의 신분

구 분	교육학 연구(%)	한국교육(%)	전체(%)
교수	373(72.0%)	168(42.5%)	541(59.3%)
연구원	88(17.0%)	144(36.5%)	232(25.4%)
교사	9(1.7%)	5(1.3%)	14(1.5%)
대학원생	9(1.7%)	16(4.1%)	25(2.7%)
강사	32(6.2%)	51(12.9%)	83(9.1%)
회사원	0(0.0%)	1(0.3%)	1(0.1%)
공무원	2(0.4%)	6(1.5%)	8(0.9%)
기타	5(1.0%)	4(1.0%)	9(1.0%)
계	518(100.0%)	395(100.0%)	913(100.0%)

이 현저히 높은 반면에, 『한국교육』에서는 교수 42.5%, 연구원 36.5%, 강사 12.9%, 대학원생 4.1%로 나타나 교수와 연구원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교육연구기관에서 발간되는 『한국교육』에는 발간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연구원의 논문발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한국교육』은 강사와 대학원생의 참여가 『교육학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두 학술지에서의 공동저자의 신분도 첫 번째 저자의 신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국교육』에서는 교수와 연구원의 신분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교육학 연구』 논문 저자의 대다수가 교수였지만 교사 신분이 약간 많았다.

4.5 연구비 지원 현황

연구비 지원현황을 대학자체, 한국연구재단, 과학재단, 기업,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타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체 학술논문 913편 가운데 연구를 위해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185(20.3%)

편에 불과하고, 다수의 논문인 728편(79.7%)은 기금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 연구비 지원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기금이 51.4%(95편)로 가장 높으며 대학 자체의 연구기금도 41.1%(76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육학 연구 지원기금은 한국연구재단과 대학 자체의 연구비임을 알 수 있다. 정부부처 가운데 교육학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부의 연구기금 지원은 2.2%로 극히 저조하며 기업의 연구지원은 0.54%로 더욱 미흡하였다.

연구주제별 지원 기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등교육 19.5%(36편), 교육사·철학과 교육심리학이 각각 11.9%(22편), 교육행정 10.8%(20편), 유아교육 7.6%(14편), 초등교육 6.5%(12편)의 순서로 나타나 발표논문 수가 많은 주제에 연구기금 역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많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연구주제별 연구지원금 현황

구 분	대학	연구재단	과학재단	기업	교과부	기타정부	기타공공	기타	전체(%)
교육사·철학	6	16	-	-	-	-	-		22(11.9%)
교육심리학	9	10	1	1	-	-	-	1	22(11.9%)
교육사회학	4	5	-	-	-	-	-		9(4.9%)
교육행정	10	10	-	-	-	-	-		20(10.8%)
교육과정	5	4	-	-	-	-	-	2	11(5.9%)
교육공학	3	3	-	-	-	-	-		6(3.2%)
교과교육	7	2	-	-	-	-	-		9(4.7%)
상담	-	2	-	-	-	-1	-	1	4(2.2%)
유아교육	5	7	-	-	2	-	-		14(7.6%)
초등교육	3	8	-	-	-	-	-	1	12(6.5%)
중등교육	2	5	-	-	-	-	-		7(3.8%)
고등교육	17	16	-	-	2	-	-	1	36(19.5%)
특수교육	3	1	-	-	-	-	-		4(2.2%)
평생교육	2	2	-	-	-	-	-		4(2.2%)
측정·평가	-	2	-	-	-	-	-		2(1.1%)
기 타		2	1	-	-	-	-		3(1.6%)
계 (%)	76 (41.1%)	95 (51.4%)	2 (1.1%)	1 (0.5%)	4 (2.2%)	1 (0.5%)	-	6 (3.2%)	185 (100.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0년부터 10년간 『교육학 연구』와 『한국교육』에 발표된 연구논문 913편을 대상으로 연구논문의 연도별 발표 논문 수, 주제별 논문 수, 연구방법, 연구행태, 연구자 신분 및 공동연구자 신분과 수, 연구비 지원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교육학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사용된 기준은 16개 연구주제, 9개의 연구방법, 8개의 저자신분, 8개의 연구지원기관 등이다.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별로는 교육행정, 고등교육, 교육사·철학의 순으로 논문 발표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 유아교육 분야의 논문 수는 200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행정과 고등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학 연구』에서는 교육심리학, 고등교육, 교육사·철학, 교육행정 등의 순수학문적인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나, 『한국교육』에서는 교육행정, 고등교육, 교육사회학 등으로 나타나 정책적인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질적 연구 등의 순서이며, 실험연구가 조사연구와 함께 교육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구방법임이 밝혀져 실질적인 실험과 현장에 대한 조사가 교육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정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구수행 형태에서 약 85%의 연구가 교수와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는데, 약 67%의 연구가 단독

연구 형태이며 나머지 33%에 의해 행해지는 공동연구의 대부분은 2-3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며, 이들의 93%는 대학 자체와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한정되어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교육학 연구의 주제별 분석을 통하여 학문분야인 교육학의 포괄적인 연구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교육학은 학문으로서의 교육학과 실제적인 교육의 두 영역을 포괄할 때 보다 완전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의 실제적인 국내외적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추후에 포함시킨다면 '교육'과 '교육학'의 관계뿐 아니라 교육분야 연구경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지구촌이 글로벌화되면서 국제적인 교육 이슈와 상관관계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슈나 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연구도 중요시되고 있다. 국제비교가 많은 교육학 분야에서 이러한 지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학 분야 연구는 정부와 지자체, 학교, 개인, 국제비교 등의 다양한 분석단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들 분석단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단위를 점검하는 것은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국가가 개인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교육이 국가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사

회가 발전할수록 분석의 단위도 국가나 지자체 차원을 벗어나 개인이나 가정, 학교 차원의 세부적인 단위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신정철 등 2008). 그런 차원에서 국가나 단체보다는 개인이나 학교 차원에서의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많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넷째, 교육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데이터 중심의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방법의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타 학문 분야의 연구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교육학 연구의 사례를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문헌정보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학 분야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연구결과의 의미 있는 분석과 해석을 위해서 질적 접근방법을 보다 널리 사용해 왔으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용하는 mixed research 또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질적 연구는 주어진 연구결과보다 연구과정과 경과를 중시하며,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주어진 현상을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현상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학 연구를 한 차원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인 심층면접, 문화기술법, 인류학적 방법, 참여관찰, 현상학적 연구, 담론분석, 해석학적 방법 등을 문헌정보학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재조명하는 연구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정, 강인설. 2009. 보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58: 263-286.
- 김민환. 2010.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0(1): 61-86.
- 한국교육개발원. 1983. 『교육학 연구경향의 분석』. 김승화 등. 연구보고서(RR1983-19).
- 김정자. 1990. 『동시인용분석법을 이용한 교육학자 연구경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류청산. 2009. 『교육학 분야 연구지원사업의 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서정화. 2005. 한국교육정책 50년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연구: 연구동향 분석. 『한국 교육연구』, 22(2): 181-198.
- 신정철 등. 2008. 고등교육의 학문적 연구 동향 분석: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5(3): 167-193.
- 이명희. 2009. 교육학분야 전문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51-6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한국교육60년: 성취와 과제』. 이종재 등. 연구보고서(PRO 2009-8-1).
- 이홍우 등. 1997.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임형택. 1991. 『한국교육과정 학문공동체의 학문 활동 분석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은수 등. 2009. 한국성인교육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4): 167-183.
- 한국교육개발원. 2010.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황윤세, 최미숙. 2008. 유아교육평가에 관한 학술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107-133.
- Budd, J. 1990. "Higher Education Literature: Characteristics of Citation Patter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1(1): 84-97.
- Emmons, N. J., et al. 1990. *Statistical Methods used i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and "Sociology of Education" from 1972 through 1987*. ERIC Document. ED319797.
- Engluand, T. 2006. "New Trends in Swedish Educational Research."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4): 383-396.
- Knudson, R. E., J. L. Theurer, and P. Boyd-Batstone. 2002. *A Decade of Literacy Research i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ERIC Document, ED482897.
- Hsu, Tse-chi. 2005.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Procedures Used by Educational Researchers." *International*

- Journal of Research & Method in Education*, 28(2): 109-133.
- OECD. 2010. *PISA 2009 Result: What Student Know and Can Do*. OECD.
- Silverman, R. J. 1987. "How We Know What We Know: A Study of Higher Education Journal Articles." *Review of Higher Education*, 11(1): 39-59.
- Tight, M. 2007. "Higher Education Research as Tribe, Territory and/or Community: A Co-citation Analysis." *Higher Education*, 55: 593-605.